

골프연습장·식당·교회 등 생활하수 '칼칼' 진원저수지 오염 주민 '고통'

관계당국, 수년째 단속 않고 방치

2015년 U대회 테니스 경기가 치러질 광주시 남구 '진월체육공원' 부지 안에 위치한 진원저수지가 주변 골프 연습장과 식당 등에서 흘러드는 생활하수로 오염된 채 수년째 방치되고 있다.

특히 농업용으로 지정돼 해마다 남구로부터 수질 검사를 받고 있는 저수지의 오염상태는 육안으로도 쉽게 확인할 수 있음에도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아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인근 주민 20여가구는 "올며겨자 먹기"로 오염된 저수지 물을 이용해 3만3천㎡(1만평)의 논에 농사를 짓고 있다.

3일 오전 광주시 남구 효덕동 진월저수지. 저수지 입구에 '농업용수'라는 표지판이 남구청장 명의로 세워져 있으나, 2개의 관에서 생활하수가 끊임없이 저수지로 흘러들고 있었다. 하수관에서 흘러나온 오수가 저수

지와 합류되는 지점에는 기름이 동동 떠 있고, 흙도 검은색으로 변해 있었다. 주민들은 악취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며 남구청 측에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남구와 주민들에 따르면 인근 골프 연습장과 교회, 식당 등 6~8곳에서 진원저수지와 연결된 2개의 관을 통해 수년째 오수를 방류하고 있다.

주민 신모(62)씨는 "저수지 전체가 이미 걸잡을 수 없이 오염됐고, 바닷은 시커먼 색으로 변한 상태"라며 "도시에서 살고 있지만, 농사를 짓는 농사꾼이라 속으로 예만 태우고 있다"고 말했다.

남구는 해마다 관내 저수지 등 농업용수의 수질을 비롯한 수문, 제방 등을 점검해 농업용수로서 적합할지 점검하고 있다. '양호, 보통, 나쁨' 등 3단계로 구분하는 수질검사는 식수와 달리 육안으로 식별한다. 남구는

지난 2월 진월 저수지를 비롯해 관내 농업용 저수지 등을 점검했으나, 특이점은 관찰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광주시가 추진하는 진월체육공원 부지 한 가운데 위치한 진원저수지는 '습지관찰원' 등 수변공원으로 조성될 예정이며, 1단계 사업으로 저수지 아래쪽에 2만3천㎡ 규모의 국제테니스장이 이르면 올해 말 착공된다.

시 관계자는 "예산 부족으로 진월저수지 정비와 관련한 2단계 사업은 아직 언급하기 곤란하다"고 밝혔다.

남구 역시 20개의 코트를 갖추는 국제테니스장은 U대회를 치를 예정이라 그에 맞게 조치를 취할 예정이지만 당장은 힘들다는 입장이다.

남구 관계자는 "진월체육공원과 수변공원이 들어서면 대대적인 정비가 필요하다"며 "설계 과정에서 인근상가와 주택에서 흘러드는 오수와 빗물 등을 별도로 배출할 수 있도록 시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이 물로 농사를? 3일 광주시 남구 진원저수지에 주변지역 생활하수가 흘러 들어가고 있다. 방류 하수로 인한 저수지 오염이 육안으로도 뚜렷이 확인된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오늘 날씨 해돋이 05시 18분 해질 19시 43분 달돋이 16시 37분 달질 02시 32분

구름 걷힌 하늘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으며 대체로 맑겠다.

광주	맑음	17/28°C
목포	맑음	15/24°C
여수	맑음	15/23°C
완도	맑음	15/26°C
구례	맑음	14/26°C
해남	맑음	14/30°C
장흥	맑음	14/27°C
고흥	맑음	13/27°C
순천	맑음	16/28°C
영광	맑음	14/25°C
진도	맑음	14/26°C
전주	맑음	14/27°C
남원	맑음	13/28°C
옥산도	맑음	14/20°C

바다	풍향	파고	밀물	썰물
서해 남부 앞바다	서~서서	0.5~0.5m	목포 11:28	04:29
남해 서부 앞바다	서~북서	0.5~1.0m	여수 06:22	16:55
		1.0~1.5m	19:16	00:28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짜	5(금)	6(토)	7(일)	8(월)	9(화)	10(수)
날씨	☀	☀	☀	☀	☁	☀
최저/최고	16/29	16/28	17/29	17/28	18/27	18/26

광신대학교 믿음, 소망, 사랑으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젊은 지성인의 교육의 요람!!

대학로: 605-9025-1114 / 대학동: 605-1115

“친구 아버지 돕자” 헌혈증 209장 모아 전달

조대여고생들

친구 아버지의 수술을 돕기 위해 동료 학생들이 200여장의 헌혈증서를 모아 전달한 사실이 알려져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다.

3일 조산대학교 여자고등학교에 따르면 이 학교 학생회는 3학년 김모(18)양을 돕기 위해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2일까지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헌혈증서 모으기 운동을 벌였다.

건설업에 종사하는 김양의 아버지(50)는 '골육종 혈액 암식 증후군 T세포 림프종' 진단을 받고 현재 화순 전남대학교병원 무균실에서 투병중이다.

골수 이식을 받아야 하는 김양의 아버지는 현재까지 적합한 대상을 찾지 못하고 있으며, 수술을 받기 위해서는 헌혈증서가 400여장 가량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정을 들은 김양의 담

임교사 임명길씨는 학생회장 박선아(18)양 등과 의논한 끝에 헌혈증서 모으기 운동을 펼쳤으며, 모두 209장을 모아 2일 아버지의 병상을 지키고 있는 김양에게 전달했다.

김 양은 "혼자서 주변 친구들에게 부탁해서 헌혈증서를 모으느라 힘들었는데, 공부하거에도 바쁜 친구들이 직접 나서줘 큰 힘이 됐다"며 눈물을 글썽거렸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화순군, 전남대 약대·수의대도 유치 추진

화순군이 전남대 의대에 이어 약대와 수의대를 화순으로 이전시키는 방안을 적극 추진 중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전완준 화순군수는 3일 "전남대(광주 용봉캠퍼스)에 있는 약대와 수의대를 화순으로 이전시키기 위해 교육과학기술부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전 군수는 "오는 2012년 전남대 의대가 화순으로 이전하기로 결정됐기 때문에 약대와 수의대 등의 약학분야 대학 연구시설이 화순으로 집약되는 것이 대학이나 지역에 모두 바

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약대와 수의대를 오는 2015년 화순으로 이전시키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화순군은 전남대 약대와 수의대 이전 부지로 의대가 들어설 전남대 화순병원 의생명과학융합센터 부지를 고려하는 한편, 행정·재정적 지원 등 인센티브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화순군 관계자는 "전남대 측도 이전 문제를 깊이 있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화순=조성수기자 css@kwangju.co.kr

영광원전 1·4호기 고장

운영 일시 중단

영광 원자력발전소 4호기의 운영이 고장으로 중단됐고, 그 영향으로 1호기의 운영도 정지됐다.

한국수력원자력(주) 영광원자력본부는 3일 영광원자력 4호기가 주변암기와 변전소를 연결하는 선로(가스 절연모선) 고장으로 이날 0시46분께 운영이 정지됐으며, 이어 그 영향으로 영광 1호기도 운영이 정지됐다고 밝혔다.

/영광=조익상기자 ischo@kwangju.co.kr

광주시에 노정교섭 요구

민주노동 광주본부

민주노동 광주본부가 광주시에 해고자 복직과 비정규직 권리보호 등 6개 지역 노동의제와 관련한 노정교섭을 처음으로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노동 광주본부는 3일 광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선언적 의미가 아닌 실질적 대화를 통해서 지역노동자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첫걸음이 바로 노정교섭"이라고 주장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비타500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확인된 안전한 제품입니다

중앙일보, 매일경제